

# 병원의 차별화와 양극화



# Contents

---

1. 환자의 스마트화
  2. 국내 의료공급체계
  3. 의료기관의 차별화와 전문화
  4. 의료기관의 양극화
-

# 환자의 스마트화

의료시장은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병상공급이 확대되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힘의 축은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이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중 2/3가 건강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 얻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권유한대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의료상품의 특징인 ‘정보의 비대칭성’ 으로 인한 소비자의 무지 현상은 과거의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즉,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진료쇼핑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시설이 가장 양호한 진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스마트 환자(Smart patients)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환자의 스마트화(계속)

국내에서도 조만간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에 어떤 명의를 있는가를 탐색하고 동일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치료사례가 있는지 검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질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치료기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임.

따라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최신 치료가이드라인을 들고 찾아오는 스마트 환자들(Smart Patients)에게서 담당의사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치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 국내 의료공급체계

국내의 의료공급체계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의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됨.

1차 의료기관은 단일 과목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단순처치와 외래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2차 의료기관은 4가지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외래 및 입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3차 의료기관은 1989년 의료전달체계 도입 당시 500 병상 또는 400 병상이상 대학병원 중에서 모든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고 있고, 분야별 전문의 수준의 진료와 의학교육, 의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 국내 의료공급체계(계속)

병원소유형태별 분포를 보면 공공의료기관은 115개소로서 10.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제공 통계자료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볼 때 병상 88.3%, 인력 86.6%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민간의료 제공비율은 영국 5%, 미국 35%, 그리고 일본 67%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는 의료공급조절에서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 의료기관의 차별화와 전문화

## 1. 의료기관의 차별화

일반산업에서 차별화와 전문화의 경영전략은 90년대부터 시작됨.

먼저 국내에서 경제성장기인 60-70년대는 성장의 시대로서 대량생산을 통한 성장성을 중시하는 경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후 80년대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이 관심사항이 되면서 기업 M&A가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경쟁력 향상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핵심능력(core competency)를 중시하는 경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업 보다 10 여년 격차가 있는 의료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님.

의료서비스의 차별화 : 의료공급자 중심에서 질병, 증상, 환자 중심의 통합 진료시스템.

# 의료기관의 차별화와 전문화(계속)

## 2. 의료기관의 전문화

지난 2005년 7월부터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병원은 중소병원의 경영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특화 및 전문화 전략은 선진국의 전문병원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병원경영 전략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전문병원제도의 도입배경에는 WTO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병원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중소병원 경영악화 대책으로 진료부문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전문병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정요건(인정기준), 지원방안 및 의료법에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의료기관 차별화와 전문화(계속)

향후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문병원을 선정하여 Incentive 제공 방안 및 제도화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운영한다는 것.

이 경우 현행 단일수가체계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출범과 더불어 영리병원과 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수준에 따라서 수가체계가 차등화 되는 다원화체계가 예상된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도 병원별 특성화, 전문화가 진행된다면 3차 진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은 Pay-for-Performance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수준의 전문화와 특화정도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영리병원의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 의료기관의 양극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인력의 증원, 시설의 확충,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 왔다.

그러나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향 후 의료공급 양태는 의료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시장에서 공급경쟁이 커지면서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 졌던 의료시장은 환자의 수요와 취향에 따라 소비자 주도로 변화되고 있다.

즉, 환자의 접근성과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의원과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3차 진료기관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에 따른 시장경쟁원리 (market principle)가 작동하지 않은 단일수가체계는 소위 Big 4 의료기관에 환자집중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의료기관의 양극화(계속)

의료소비자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획득 용이성과 교통수단의 편리성으로 인한 몇몇 선두병원에 대한 의료집중화 현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3차 진료기관들의 방어기전의 작동이 일어났고, 수도권 3차 진료기관에서는 소위 ‘몸집불리기’ 도미노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진료기관의 병상공급이 급격한 공급팽창이 이루어 졌으며, 병원간의 경쟁양상(건물,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등)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의료수요의 증가보다 의료공급병상의 증가의 초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공급과잉과 의료자원 낭비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병상공급 조절에 대한 정책조정기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의료기관의 양극화(계속)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에서만 겪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공급병상수가 150만병상수에 도달했다가 2003년도 절반 수준인 85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병상수의 감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재원일수의 단축 및 포괄수가제 도입의 확대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도 외래중심의 의원과 입원중심의 대형병원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M&A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국내에서도 중소병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와 중소병원의 자구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전문병원, 개방병원 및 노인병원의 전환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 의료기관의 양극화(계속)

일본에서도 중소병원들의 전문병원제도는 현재 전환기에 있으며, 기능미분화 병원은 지역 중핵형 병원이나 전문병원을 목표로 하거나 노인수용형 병원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중소병원의 진료기능이 갑상선 전문, 혈액전문, 당뇨병 전문, 알레르기 전문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름의 ‘블루오션’ 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병원들도 ‘의료양극화 현상’ 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지혜가 요망된다.